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6 9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맑고 향기롭게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소통-쑥부쟁이(91.0x60.6) • 이가온

* 이가온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현대미술전공
불교의 불이(不二)사상을 화폭에 담아내는 화가

맑고 향기롭게 실천덕목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시다.

2016 / 9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이웃과 나누는 일이 최상의 수행
공감으로 소통하실래요	09	상대가 하기를 바라는 말!
꽃은 흙에서 핀다	12	국화도둑
일요특강	16	무소유와 생태운동 ②
좋은 글 나눔터	20	귀향
아버지와 함께한 하루	22	그리움
아름다운 마무리	26	열심히 일했지만 피할 수 없었던 가난
운명보다 강한 열정	28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
숨어서 피는 꽃	30	절망은 없다
따뜻한 이야기	34	아홉 번의 인내
옛날의 금잔디	36	실종 신고
사무국에서 알림	40	법정 스님의 글로 잘못 알려지고 있는 글
향기나는 우체통	42	벗님들에게
실천하며 삽시다	43	내가 먼저 활짝 웃읍시다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4	중앙모임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49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6년 9월 1일 발행 / 통권 259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형준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염현경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부산모임 : (051)898-2672~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이웃과 나누는 일이 최상의 수행

글 • 법 정(法 頂)

이웃이란 나누어 가지는 사이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해서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괴로움을 함께 나누어 가질 때 비로소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나누어 가짐으로서 굳게 맺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다. 즐거움을 나눌 때는 그 즐거움이 몇 곱으로 늘어나고, 괴로움을 나눌 때 또한 그 괴로움은 훨씬 가벼워진다. 나누어 가짐에는 이렇듯 미묘한 율동이 따른다.

오늘날 우리들은 선뜻 나누어 가질 줄을 모른다. 또 그러기를 주저하고 있다. 저마다 자기 울타리 안에 갇혀 관계의 이웃으로 길을 트려고 하지 않는다. 눈앞의 사소한 이해타산에만 급급한 나머지 덕을 쌓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미 이루어진 이웃과의 관계도 자신에게 이익이 없으면 더 지속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관계를 떠나 홀로 살 수 없는 사회적인 존재다.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와 영역이 그만큼 확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화엄경 보현행원품(華嚴經 普賢行願品)〉은 구도자의 수행으로써 나누는 일을 말하고 있다.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나누어 가져야 할 것인가를 강조한다. 나누는 일이 곧 구도자의 일상적인 행동이고 소원이며, 그것이 또한 법계에 도달하는 여로, 즉 진리를 구현하는 길임을 열어 보인다.

나누는 일을 여기서는 열 가지로 들고 있다. 예배·공경, 찬탄, 공양, 참회, 함께 기뻐함, 설법을 청함, 이 세상에 오래 머물기를 원함, 본받아 배움, 이웃의 뜻에 따름, 돌려 보내줌 등으로써 나누는 일을 삼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 몇 구절을 들어 진정한 나눔이 어떤 것인가를 음미해 보려고 한다.

공양(供養)이란 문자 그대로 받들어 올리는 일이고 봉사하는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으뜸가는 공양인가. 모든 공양 중에서는 법공양이 으뜸이라고 전제, 그 내용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것, 우리 이웃들을 이롭게 하는 것, 이웃을 거두어 주는 것, 이웃들의 고통을 대신 받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 보살의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것,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것들이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공양보다는 직접 몸으로 작용하는 덕스러운 행위가 법다운 공양임을 역설한다. 그러면서 이런 출세간적인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부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곧 부처님을 출현케 하는 일이고, 보살이 법공양을 행하면 이것이 곧 부처님께 공양하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수행하는 것이 참다운 공양이다."

공양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음식이나 의복 등을 연상하기 쉬운데, 진짜 공양은 물질적인 것보다도 그 뜻을 받들어 몸소 행동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부처님께 공양한다는 것은 값비싼 공양거리로써 잔뜩 쌓아 올려 법석을 떠는 일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몸소 행동하는 그 일 자체가 곧 진정한 공양이고 또한 부처님을 지금 이 자리에 출현케 하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행동이야말로 실다운 수행이라는 가르침은, 불교의 실상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또 이웃의 뜻에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말한 이웃이란, 사람만을 가리키지 않고 이 우주에 존재하는 온갖 생물을 통틀어 말한다. 이런 모든 이웃들에게 순종하면서 섬기고 공양하기를, 마치 내 부모와 같이하고 스승과 같이하며 성자

나 다름없이 받들라는 것. 그래서 "병든 이에게는 의사가 되어주고, 길 잃은 이에게는 바른길을 가리켜 주며, 어둔 밤에는 등불이 되고, 가난한 이에게는 재물을 얻게 한다."

이와 같이 모든 이웃을 평등하고 이롭게 받들고 보살피는 것이 진리를 몸소 구현하려는 보살이라는 것. "보살이 이웃의 뜻에 따르는 것은 곧 부처님께 순종하여 공양하는 일이 되고, 이웃을 존중하여 받드는 것은 부처님을 존중하여 받드는 일과 다름이 없으며,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곧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된다."

앞에서 이야기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몸소 행동하는 것이 곧 부처님께 올리는 진정한 공양'이라는 의미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자비심으로 그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웃으로 인해 자비심을 일으키고, 자비심으로 인해 진리를 사랑하고 구현하려는 보리심을 발하게 되며, 또한 보리심으로 인해 마침내는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리심은 어디까지나 우리들 이웃에게 딸린 것. 만약 우리에게 구체적인 이웃이 없다면 우리는 해야 할 일도, 깨달음도 이룰 수 없을 거라는 논리다.

이와 같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대하는 우리 이웃의 존재의미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해서, 이웃이 없으면 우리 자신의 존재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말이다.

우리들 이웃에게 멀고 가까움이 없이 마음을 평등히 함으로써 원만한 자비를 성취하고, 자비심으로 이웃의 뜻에 따라줌으로써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란 말은, 공양의 참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결같이 역설하고 있다.

진리를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내 보이는 보살은 그 염원 또한 지극해서, 조그마한 선행으로 자기 만족에 도취되기 쉬운 우리들을 일깨우고 있다. 그러고 나누어 가질 때마다 이런 다짐으로 끝없는 구도의 길을 스스로 일깨운다.

"허공계가 다하고, 우리들 이웃의 세계가 다하고, 이웃의 업이 다하고, 이웃의 번뇌가 다 할지라도 내 보살의 행은 다하지 않는다." 이런 다짐과 행동이 한순간도 쉼이 없이 지속되면서도 몸과 말과 뜻에는 조금도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는 것이 진정한 보살의 의지이고 나누어 갖는 보살행이다.

이렇듯 지극한 보살은 그럼 누구이고 그런 행동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보현보살이란 경전에 나오는 과거의 특정 인물만이 아니고,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지금 이 자리에 우뚝 서 있는 우리들 자신, 자기 존재를 철저히 자각한 내 자신일 수 있다. 또 보현보살의 그토록 간절한 행동양식은 우주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에 대한 관심, 즉 끝없이 나누는 기쁨에서 움틀 수 있다.

마음과 부처와 이웃은 근원적으로 차별 없이 하나를 이룬다(心佛及衆生 是三無差別)고 한 화엄경의 사상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나누는 기쁨'을 다루고 있는 보현행원품은 화엄경 입법계품 안에 들어 있는 법문이다. 입법계란 진리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뜻. 다시 말하면, 이웃과 나누어 가짐으로써 진리의 세계(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지만, 대개는 자기 존재를 스스로 대수롭지 않게 비하한 나머지 묵혀둔 채 녹이 슬게 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의 존재의미를 철저히 자각하게 되면 일반의 상식으로는 헤아리기 어려운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입법계품을 다른 표현으론 불가사의한 해탈의 경전(不思議解脫)이라고도 하고, 혹은 불가사의한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는(入不思議解脫境界) 보현행원품이라고도 한다.

화엄경 입법계품에 의하면, 선재동자라는 젊은 구도자가 문수보살에 의해 보리심을 발하여 53선지식을 차례로 방문한다. 찾아간 선지식에게 진리를 묻고 법문을 들으면서 거듭거듭 형성되어 가는 그 머나먼 구도의 여로

에서 마지막으로 보현보살을 찾게 된다. 보현보살은 부처님의 공덕은 우리들 상식으로는 도저히 말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다고 하면서, 열 가지 큰 행원을 쌓아야 그 같은 공덕을 성취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행원이란 행동과 소원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를 이룬다는 뜻. 즉 행동은 소원에 뿌리를 내려 있고, 소원은 곧 행동으로 드러남이다.

선재동자의 구도행각이 지혜를 상징한 문수보살로부터 출발하여 온갖 덕행을 상징한 보현보살에 이르러 마치게 된다는 것은, 불교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넌지시 말해주고 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을 통해 여러 계층의 이웃과 끝없이 나누어 가짐으로써 자유(해탈)와 평화(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

여기에 나오는 열 가지 행원은 참을 추구하는 모든 구도자가 걸어가야 할 보편적인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은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인간의 길'이기도 하다.

– 보현행원품 해제 ; 나누는 기쁨 중에서

일요특강 – 길상사 오감(五感) 자기경영 아카데미

상호존중과 배려의 삶

정두근 / (사)상호존중과 배려운동본부 총재

9월 25(일) 오전 11시 / 길상사 설법전

가족공동체에서 시작하여, 사회공동체, 나아가 민족과 국가 간에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간성을 회복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더불어 행복을 누리자'는 운동이 바로 상호존중과 배려운동입니다.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인간은 비로소 이기적 탐욕이 빚어낸 갈등과 분열, 전쟁을 극복하고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가꿀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가 하기를 바라는 말!

글 • 고현희(공감대화 개발원장)

마하트마 간디의 손자 아룬 간디는 '비폭력은 우리 안에 잠재해 있는 긍정적인 면이 밖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기심, 탐욕, 미움, 편견, 의심, 공격성 대신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중, 이해, 감사, 연민, 배려가 우리 마음을 채우도록 하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밖으로 나타나도록,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감정들이 넘실대도록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말하는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는 것일까요? 판단과 평가를 멈추고, 느낌과 바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은 어른의 말을 그대로 따라 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는 말도 그대로 따라서 하며 언어를 배워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는 말은, 사용하는 단어는, 억양은 주로 부모의 말과 단어와 억양입니다.

말을 능숙하게 하기 전의 아이가 양손에 과자를 들고 있을 때, 엄마가 '엄마 하나만 줄래?' 라고 말하자, 아이가 양손을 번갈아 보면서 어쩔 줄 모른다면, 엄마는 '어떤 것을 엄마에게 줄까 하고 고르는 중이구나?'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엄마의 말에 아이가 고개를 젓는다면, '양쪽 과자를 다 네가 먹고 싶은데, 엄마를 주려고 하니 고민되는구나?'라고 다시 말해줄 수 있겠지요? 이런 문장이 생활에서 반복되면서 아이는 부모의 말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문장을 만

드는 것과 대화를 나누는 것에 미숙한 어른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는 불가능한 것, 어려운 것, 힘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나누며 공감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하다가 싸우거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거나 입을 다무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어른들에게는 말을 배우는 아이에게 하듯이 '상대가 하기를 바라는 말', '상대가 해야 할 말'을 짐작하여 말해주어야 합니다. 즉,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내가 투명한 유리잔에 시원한 음료를 찰랑찰랑하게 담아 남편에게 내밀자 남편이,

'너무 많아요, 무식하게...'라고 말한다면 아내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느낌이고, 존중받지 못했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내는 '이게 뭐가 무식한 것이에요?'라고 쏘아붙이거나,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요!'라고 비난을 하거나, '어휴, 어이없어. 다시는 음료를 주나 봐라.' 라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공감대화를 생활화한 아내라면 남편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남편이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화일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말할 것입니다.

'음료 잔을 너무 많이 채워서 마음에 안 들어요?'

'잔을 중간 정도만 채우기를 바라는군요?'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채우는 것보다 여유 있게 채우는 잔이 좋은 것이지요?'

'당신 아내가 잔을 반보다 조금만 더 채워서, 품위 있게 가져오기를 바라는 거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대화가 남편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를 내려놓고 원하는 것을 말하는 훈련으로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중학생 자녀가 친구 이야기를 하다가,

'걔는 의지가 없어. 나한테는 연습을 한다고 말해놓고, 하루 연습하고는 그다음에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연습을 안 해. 허풍쟁이라니까.' 라고 판단을 한다면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 중학생 자녀가 하기를 바라는 말을 해본다면 무엇일까요?

*** 중학생 자녀의 바람 :** _____

_____

*** 중학생 자녀가 하기를 바라는 말 :** _____

_____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 평안한 경지에 이르러 /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 유능하고 정직하고 / 말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 잘난 체하지 말아야 한다.'

법정 스님의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에 적힌 숫타니파타의 한 구절입니다. 상냥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은 '애어愛語'로서 무재칠시 중 하나입니다. 상대를 배려하여 말해주는 것은 상대에게 한 걸음 다가간 것이고, 상대에게 눈을, 마음을 맞춘 것입니다. 이 공감을 위한 눈 맞춤이, 한 걸음이 소통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그 친구가 실망스러워서 허풍쟁이라고 표현하는구나? 친구가 의지를 굳게 가지고 연습해서 성장하기를 바라서 그렇지?'라고 중학생 자녀에게 말해주면 '응!' 하고 고개를 끄덕일까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녀는 한 걸음 다가오는 부모를 통하여 성장할 것입니다.

* 주변에서 보거나 들은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이웃사촌의 정겨움으로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우리 함께 만들어 봅시다. 원고는 언제라도 받고 있으며, 보내실 때 본인 소개(약력, 연락처, 주소, 전하고 싶은 말씀)를 적어 보내주시고, 채택될 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전자 우편 : clean94@daum.net

국화도둑

글 • 김기철(도예가)

장마 때가 되면 생각나는 일이 있다. 나는 돌담 울이나 돌축대를 좋아해서 크지 않은 자연석을 헙수룩하게 쌓아 올리는 일이 취향이라기보다는 삶의 활력으로 마치 예술품을 창작하는 것처럼 신바람이 난다. 우리 가마 뒤편은 까틀막진 산이라서 나의 이런 성향을 그런대로 충족시키기에 족하다. 우리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만족할 만한 돌축대를 쌓았고 그 위에는 국화 화단을 만들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개량종이나 외래 화초에 대한 매력을 잃고 야생꽃이나 재래종에 반하게 되었다. 전자는 크고 화려하기는 하나 맑고 섬세한 재래종에서 볼 수 있는 자연의 원초적인 신비함 같은 것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그래서 국화 역시 재래종이라고 여겨지는 것만을 닥치는 대로 끌어들였다. 좀 치사한 짓이지만 구경 갔던 여기저기 절간에서도 뜯어오고 남의 울안에서도 얻어오고 아무튼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까지 내 눈에 걸리기만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두 가닥 뽑아 가방에 틀어넣었다. 이렇게 해서 축대 위에는 상놈인지 양반인지 튀기인지도 모를 촌스러운 무리로 하나 가득 메워놓게 되었다.

한번은 강원도 동해안 어느 암자로 이름 있는 석불을 보러 답사 팀에 끼어 가게 되었는데 나의 두 눈알은 어디 국화가 없나 해서 이 구석 저 구석을 살피다 바로 코앞에 노리끼리한, 제법 대가 굵은 몇 개의 국화가 부처님 앉은 바로 뜰 아래 심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거야말로 수천 년 내려온, 오랑캐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우리 국화 같았다. 나는 국화 값으로 복전함에 시주 좀 하라고 집사람한테 눈짓을 하고 사방을 간교하게 휘둘러보면서 번개처럼 한 가지 뽑아 들었다. "아니 그 국화는 왜 훔치는겨? 낫살이나 먹은 양반이!" 보살인지 무당인지 늙수그레한 할망구가 와락 절이 떠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함께 간 백여 명이나 되는 젊은 친구들이 한꺼번에 내 얼굴을, 내 국화 움켜쥔 손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 결국, 그 문제의 국화도 버스 시렁에 매달려 이박 삼 일 동안의 문화유산 답사를 무사히 마치고 돌 축대 위에 모셔졌다. 나는 이런 식으로 국화를 끌어들이면서 어정쩡하게 도둑의 생리에 물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말하자면 도둑치고는 제일 가련한 좀도둑인데 왕창 한번 해서 팔자를 고치는 것도 아니면서 그 짜릿한 쾌감과 낭패감을 번갈아 맛보면서 어딘가 뻔뻔스럽게 돼버렸다는 사실이다. 하기는 땅바닥에 발바닥을 붙이고 제가 목적하는 바를 얻기 위해 두 주먹을 움켜쥔 인간치고 알게 모르게 남의 것을 제 것으로 잡아 뺏지 않은 예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렇다고 내가 사방팔방에서 국화 뜯어온 것을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조금도 없다. 다만 남에게 그다지 손해를 입히지 않고 몰래 가져오더라도 자주 이자를 늘려서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제 몫을 몇 년이고 땅속에 묻어놨다가 고대로 꺼내 주인에게 되돌리는 어리석은 종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나는 사려분별도 없이 이제 가을만 되면 온갖 우리 국화가 피어날 것이라고 주책을 떨어댔다. 과연 축대 위 국화 화단은 싱싱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아기자기하게 쌓아 올린 축대 위의 국화 무리를 바라볼 때마다 가을에 피워낼 갖가지 빛깔의 국화꽃 정경이 눈 앞에 펼쳐지고 그 신선한 향기가 코를 통해 가슴속까지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다. 황금 국화, 노란

국화, 자주색, 연분홍색, 흰 국화 해서 수많은 꽃 떨기가 돌축대를 따라 형형색색으로 피어나면서 저마다 귀여운 얼굴로 재롱을 부린다고 생각하니 만세를 부르고 싶은 심정이었다. 다른 화초들은 다 시들어버린 이 삭막한 계절에 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나의 학생 시절 좁은 마당에 국화 한두 분을 심어놓고 무던히도 꽃보기를 기다리다 마침내 꽃잎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하면 혼자 보기 아까워 친구들을 불러들이지 않았던가. 꽃이 피면 수많은 사람들을 오라고 해서 호박 찰시루떡 몇 시루 쪄놓고 대접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울렁거리는 것이었다. 옛사람들은 국화주도 담갔는데 찹쌀술을 빚어 술동이에 국화 몇 송이를 못 띄울 건 뭔가? 이렇게 되면 도둑질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다 내다놓고 잔치를 벌여가며 자랑을 하는 쪽이니 파렴치하다 할까 순진하다 할까 모르겠다. 다만 훔쳐다 심은 시시콜콜한 내막은 묻어두고 그 아름다운 빛깔과 신선한 향기만을 즐겨주신다면 해마다 국화 꽃 잔치를 떡 벌어지게 마련해서 여러분을 모실텐데…….

여전히 돌축대 위에는 내리쬐는 햇볕과 소나기를 맞아가며 이름도 성도 없는 천진스런 촌 녀석들이 너풀너풀 춤을 추고 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들이붓듯이 쏟아진 간밤 장맛비로 축대가 왕창 무너져 내린 것이다. 그 실하게 자라고 있던 귀여운 것들이 산사태로 쓸려 생매장이 되고 말았다. 하늘이 벌을 내려도 너무했다. 죄는 나에게 있으면 있지 한창 크는 국화야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인가. 어떻든 나의 국화 동산을 만들어보겠다는 욕심이 벌 받을 거리는 되는 것이다. 남들은 부처님 앞에 나오면 일주문을 들어서기가 바쁘게 합장 배례를 시작으로 무릎이 닳도록 절을 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예쁘고 향기로운 꽃을 갖다 바치는데 그런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이 그저 국화 어디 있으면 빼내 갈 탐욕으로만 들끓고 있었으니 그 업보를 이렇게 당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장마 끝의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고 중천에서 내리쬐는 햇볕은 눈이 부시도록 신천지를 펼쳐 보이건만 지금 이 자리는 폐허를 방불케 하는 참상으로 너부러져 있는 것이다. 비가 적당히 내려서 그 올망졸망한 돌팍 하나하나가 그대로 빗물을 머금고 그 위로 부드럽게 넘실대는 국화잎들이 오랜만에 강림한 천상의 빛나는 손님을 맞아 환희에 찬 날갯짓을 하고 있었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바로 낙원의 한 자락이 되고도 남았을 텐데…….

우선 흙 두꺼비가 되고 돌팍에 으깨진 국화 포기들을 파내어 물에 대충 씻어 가식(假植)을 했다. 여기서 낭패와 울화로 힘이 빠지기도 했지만 두 팔을 걷어붙이고 모두 덤벼들었다. 남의 나라에서는 수백 년에 걸쳐 인류문화의 금자탑이 될 축조물을 이룩했는데 그까짓 어린애 소꿉장난만도 못한 불과 몇 달 동안 손발 움직여 쌓아 올린 돌축대가 무너졌다고 두 다리 뻗고 주저 물러앉아 있을 이유가 없었다. 이번에야말로 천지개벽을 하지 않는 한 무너지지 않을 축대를 쌓겠다고 전번의 낭떠러지 석축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 기초를 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뻣뻣하고 무미건조한 획일적인 것이 싫어 돌축대의 이미지를 부드럽고 낭만적인 기분이 들게 하고 싶었다. 마치 훈풍에 밀려오는 파도처럼 넘실대는 듯한 곡선으로 재주를 피웠다. 마침내 제법 자연스럽고 편안한, 그리고 푸근한 느낌을 주는 축대가 마련되었다. 그 위에 국화를 몇 배로 더 심을 수 있는 화단이 이룩된 것이다. 물론 재난으로 만신창이가 된 놈들을 다시 제자리에 옮겨 심었다.

이제부터는 절에 가서 국화 포기를 보면 어색한 합장이라도 하고 복전함에 그 값을 톡톡히 넣을 마음이다. 그동안 천방지축으로 끌어들이던 버릇은 자제하고, 우리 꽃 우리 문화의 향기가 얼마나 좋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이웃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어서 그 치사한 국화도둑의 누명을 벗고자 한다.

무소유와 생태운동 ②

글 • 김종철(문학 평론인)

농촌진흥청에서 그동안 유전자 조작 쌀을 개발해서 내년부터 논에 심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참 무서운 일입니다. 유전자 조작 식품 같은 것만 하더라도 외국에서 특히 유럽에서는 시장에 못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 밥상에 국산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전통 음식인 된장 중 판매되는 된장의 콩은 거의 90%가 수입품 입니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콩은 전량 100%가 유전자 조작 콩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업이 농민들이 자유롭게 씨를 골라서 심는 것을 뺏어서 독점화하고 특허화해서 돈을 벌려고 유전자 조작 식품을 만들어서 자기 상표를 내고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 식품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뚜렷하게 건강에 해롭다, 유해하다, 무해하다, 결론이 안 나와있습니다. 안 나와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전혀 다른 성질의 두 생물의 분자를 결합해 유전자를 변형시켜 냈단 말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식물하고 동물도 결합시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닭 다리를 좋아하니 생물학자들이 다리 10개 되는 닭을 만들어낼 거라고' 지네 유전자와 닭 유전자를 섞어서 내면 안 되겠냐 하고 농담 삼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지금 기후변화도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닙니다.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지구 역사상 전례 없이 인간의 힘으로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 변화로 인해서 닥쳐올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하여간 굉장히 사람 살기 불편한 세상이 됩니다. 문제는 결국 다 공멸하게 되는데 최초의 단계에서는 약자들이 희생되지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전쟁도 근절할 방법이 있습니다. 덴마크의 어느 장군이었다고 하던데 이분이 유럽에서 1차 대전, 2차 대전이 연거푸 나면서 참극이 벌어지니 전쟁을 근절시킬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이분이 착상했다는 건데 들어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피해를 보도록 설계를 하면 된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건 젊은이들, 그것도 가난한 집에 젊은이들,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결정한 그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후방에 있고 지휘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몇 개 규약을 만들어 유럽 각국 수반들에게 돌렸다고 합니다. 규약의 핵심 내용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결정한 대통령 혹은 수상 그리고 장관들, 전쟁하기로 찬성했던 국회의원들은 즉각 최전선에 병사로서 싸워야된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은 최전선에 있는 야전병원에 가서 간호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전쟁에 찬동했던 종교인들, 학자들도 전부 최전선에 가서 복무해야 된다.'입니다. 이런 규약을 만들어서 찬성 동의하라고 각국 수반들에게 돌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항상 범죄는, 죄는 엉뚱한 사람이 지어놓고 희생자는 딴 데서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기후변화도 근본적으로 그런 이야기이지요. 자동차의 폐해가 막심한데, 환경의 적 제1호가 사실 자동차

입니다.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갑갑하게 살고 있습니까? 저는 조금 예민한 편인지 모르지만, 숨이 막힐 것 같더라고요. 가을에 황사나 초미세먼지로 인해 고생해본 적은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갔다 싶으면 계속해서 한 달에 열흘 정도 이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떡할 거에요. 예전 임명제 서울시장일 때는 시내 오염이 심하다 싶으면 대형트럭이나 자동차 통행을 자제해달라고 제안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전부 선거를 통해서 시장을 뽑기 때문에 시장들이 시민들에게 인기 없는 이야기는 절대 안 하죠. 이건 뭐 야당이고 여당이고 관계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듣기에 불편하다 싶은 이야기는 안 합니다. 실제로 불편한 이야기를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거에요. 지금 이 상태로 가서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살라고 말입니다. 땅덩어리가 다 오염되고 기후가 고르지 않게 되면 어떻게 삽니까? 농사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지도자일수록, '불편하지만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러이러한 길로 갑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정치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 저 같은 사람이 맨날 떠들어봤자 들리지 않는다고 하니 이런 곳에서 초청해주실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얼마나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길상사 신도님과 맑고 향기롭게 회원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지금도 미련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요. 그런 연구를 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극소수는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연구가 발달한다면 전체적인 생태계와 인간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장기적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사람이 결정해서는 안 되잖아요. 인간이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생로병사는 자연의 뜻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로 하면 조물주의 뜻이에요. 여기에 인간이 개입한다? 결국은 말세입니다. 인간의 타락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것이 근본적인 타락입니다. 절집에서 쓰는 용어로 공양(供養)이란 말이 있습니다. 공양이란 말은 원래 인도에서 나온 말입니다. 공양이란 말이 원래 공희(供犧)입니다. 자기를 제물로 해서 바친다는 뜻입니다. 불가(佛家)에서는 아주 옛날부터 밥을 희생이라고 본 거에요. 우리나라 말에도 그렇잖아요. '너 내 밥이야.' 희생물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이라는 게 나는 너에게 밥이 되고, 너는 누구에게 밥이 되고, 서로 서로에게 밥이 되면서 돌아가는 것이 우주의 원리입니다.

인도 힌두교에서 가장 중요한 우주의 원리가 희생이라고 합니다. 모든 존재가 스스로 희생한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공양을 하면 우리 새끼들이 나오고 자손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순환하는 거예요. 왜 때가 되면 죽지 않겠다고 난리들을 칩니까? 죽는 문제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짓거리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현대과학이라는 것도 궁극적으로 사람이 죽기 싫으므로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온갖 짓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롭고, 인간관계가 좋지 않고, 사는 게 보람이 없고, 이런 의식이 많은 사회가 될수록 죽음을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죽을 때가 되어서 만족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한 번도 살아본 것 같지 않거든요.

제가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죽기를 그렇게 싫어해요. 가서 하나님 만난다고 하면서……. 가서 빨리 만나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진짜로 믿질 않는거예요. 근데 예전 우리 선대들까지만 하더라도 죽음에 대해서 우리 세대처럼 두려워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 2015년 10월 25일 김종철 교수
일요특강 정리

귀향

글 • 함명춘(시인)

애초부터 이곳에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었다
행복이란 원래 가질 수 없는 것이었다
힘센 어둠의 무리들이 손 닿지 않는 곳에
아주 교묘하게 매달아놓은 저 달처럼
여기는 몸에서 마음까지 끊이지 않는 열기와
피도 눈물도 없는 모래로 가득한 사막
어느 날부터인가 내 몸엔 까칠한 갈기가 돋고
강한 턱뼈와 이빨이 자라나고 있었다
오로지 살아남기 위하여 난 그 무엇이든
단숨에 쓰러뜨리고 씹어 삼켜야 했다
떠나야 한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야 한다
눈과 비의 기억으로부터 완전히 제외된 이 도시를
내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꼬리를 뒷주머니에 넣고
난 서둘러 기차역을 향해 집을 나선다
어디선가 누구의 사주를 받고 왔는지 철저히 은폐된
한 무리의 바람이 또 거리를 뒤덮으며 불어온다
어쩌면 나를 이토록 흉측한 괴물로 만든 건
저 바람, 무섭도록 차고 부드러운 손이었는지 모른다
멀리 이 도시를 떠날 마지막 기차가 들어온다
이 기차를 타고 난 최대한 멀리 가야 한다
동이 트면 다시 내 몸엔 갈기와 이빨이 자랄 것이고
낮게 엎드려 있다가 누군가 사정거리에 들어오면
난 한 방에 숨통을 끊어야 할 것이다 곧바로
나보다 더 강한 놈이 있는지 주위를 살펴야 할 것이다
자동으로 열리는 기차 승강구에 내 몸을 구겨넣는다
드디어 촘촘히 박혀 있는 어둠을 가르며 기차가 달린다
하지만 난 어디로 가는가 과연 돌아갈 곳이 있긴 한 건가
기억이 나질 않는다 들리지도 이젠 보이지도 않는다
언젠가 격렬한 싸움에서 부러진 발톱 위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 문학동네시인선 074 함명춘 시집 〈무명시인〉 중에서

---

* 199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이후 1998년 첫 시집 〈빛을 찾아선 나뭇가지〉를 낸 뒤 지금껏 잠잠했던 그가 오랫동안의 침묵을 깨고 두 번째 시집을 출간했다. 이번에 그가 펴낸 두 번째 시집은 그래서인지 첫 시집과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인다. 시 안에서 이야기가 화수분처럼 터진다. 첫 시집이 나뭇가지 위에 올라앉은 새의 자세였다면 이번 시집은 그 새가 나뭇가지를 디딤으로 삼아 다른 나뭇가지로 날아가는 역동성과 활력을 띤다. 한 편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가 될 수 있는지, 그 이야기가 어떻게 한 편의 시로 읽히는지 그는 시 한 편마다 익숙한 듯 새롭게 전개하고 있다.

* (사)맑고 향기롭게와 인연 있는 분(회원, 길상사 신도, 봉사자 등)의 저서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직접 출간하신 서적, 발표하신 글을 사무국으로 보내주시면 '월간 맑고 향기롭게'에 소중하게 담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움

글 • 김광석(나고야대학 교수)

늘 고향 가는 길은 멀기만 했다. 고향 가는 고속버스표는 한 달 전부터 미리 예매를 시작했었다. 예매를 시작하는 당일이면 고향 가는 표는 금세 바닥이 나고 표를 사지 못한 사람들은 웃돈을 얹어서 암표를 사거나 출발 당일 선착순으로 탈 수 있는 직행 버스를 타고 가야 한다. 직행 버스를 타려면 새벽부터 터미널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고, 몇 시간이 지나야 겨우 표를 살 수가 있었다. 어렵게 표를 사더라도 12시간 버스에 시달려 가는 방법이었다.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 당시는 요즘처럼 자가용 승용차가 보편화 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고향으로 가는 노선버스가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했었다. 더군다나 그곳은 서울과 달리 동향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이었다. 일을 마치자마자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한 달 뒤 고향 가는 기쁨을 살 수 있는 표를 예매하기 위해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평상시는 고향을 숨기고 살아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소수인의 신세이지만 이날만은 동향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니 마음껏 고향을 서로 터놓고 나눌 수 있어 동지섣달 한겨울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인간의 각종 편견으로 말미암아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소수의 입장을 나는 10대 중반부터 혹독하게 경험을 했던 것이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공통된 명제 아래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민족 간의 갈등과 종교 간의 갈등,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로 말미암은 갈등에서부터 빈부의 갈등까지 서로 분리가 아닌 하나가 되어 서로 위하고 배려할 줄 알며 서로 받드는 자연인의 우리가 되어야 한다.

동향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는 고향을 숨길 필요도 없이 마음껏 구수한 고향 사투리로 서로의 애환을 달래고 각기 고향의 얘기 보따리를 펼쳐놓는 마치 축제를 방불케 하는 자리여서 밤새도록 지칠 줄 몰랐다. 10대 초반의 왜소한 아이부터 연로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줄을 서 있는 사람은 모두 가족과도 같았다. 각자 들고 온 음식을 펼쳐놓고 서로 술잔을 나누기도 하고, 타향에서 겪은 서러움을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었고, 내 고향이 최고라며 자랑하는 애향가도 있었다. 이렇게 고향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각각의 사연들을 가슴에 품은 채 일 년에 두 번, 터미널에서 상봉 아닌 상봉을 하게 된다. 낯익은 얼굴이라도 보게 되면 친척이라도 만난 것처럼 반갑게 악수를 하기도 했다.

나는 여기서 운명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내 고향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왔다는 명환이라는 친구와의 만남이다. 그때가 17살 정도였다. 그 친구는 사촌 형을 따라 표를 예매하기 위해 나온 것이었다. 비교적 활발한 성격의 나와는 달리 내성적이고 왜소했다. 그곳에서 동향의 친구를 만나는 것은 명환이가 처음이었다. 우리는 곧 가까워지게 되었고 친구라기보다 형제와 같이 서로 의지하고 각기 가지고 있는 애환도 털어놓고 지내게 되었다. 그때 들었던 친구가 가진 가슴 아픈 운명의 사연이 나의 뇌리에 각인되어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과 동시에 떠오르는 기억으로 남아 있다.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명환이의 애절한 마음이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의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지 못해 늘 과욕으로 자신을 얽어매 스스로의 불행을 자초하는 경우

가 많다. 조금만 비우고 살면 그 자리에 행복이 가득할 텐데 욕심에게 자리를 내주는 바람에 스스로 불행의 주인공이 되고 마는 사람들이 많다.

내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것,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조차 아주 당연할 뿐이다. 내가 먹고 잘 수 있는 지붕이 덮인 공간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침저녁 끼니때면 입안으로 배 터지게 음식물을 밀어 넣을 수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먹고 남는 음식물도 버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내가 건강히 움직이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내 자식이 건강한 것도 당연하다. 오늘이 있고 내일이 오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산다. 과연 그러할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보다 불행이, 감사하는 마음보다 불평만으로, 겸손보다 오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옛날 친구의 얘기를 떠올리며 나의 주위를 살펴본다.

고향이 있으면서도 가지 못하는 실향민이 우리 이웃에 살고 있다. 그러는 나는 고향에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야 하지 않을까? 나를 낳아 준 어머니의 얼굴도 모르고 사는 내 친구가 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돌팔매질하는 그런 어머니라도 좋으니 얼굴만이라도 보았으면 하는 친구가 있다. 집이 없어 노숙하거나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는 사람도 있다. 단칸 월세방이라도 들어가 쉴 수 있는 우리의 공간이 있으면 하는 내 아내 같은 이도 있다. 끼니를 때우지 못해 물로 배를 채워야 하는 이웃이 있다.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쌀밥을 배불리 먹고 죽고 싶다는 이웃이 있다. 자식의 불치병으로 하루하루 가슴 졸이며 사는 부모가 있다. 그 부모는 공부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지 않고 건강해주기만을 기도한다. 눈이 보이지 않아서 나를 낳아 준 부모의 얼굴과 사랑하는 이의 모습을 볼 수 없는 내 이웃도 있다. 그를 볼 수만 있다면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단다. 귀로 들을 수 없어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도 듣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도 있다. 듣고 말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는 이웃도 있다. 어제 건강했던 몸이 갑자기 오늘 쓰러져 누워서 병원 신세를 지는 안타까운 나의 친구도 있다. 다시 건강을 찾는다면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털어 좋은 일 많이 하고 살겠다며 제발 건강만 돌려 달라고 애원하는 친구가 있다. 아버지를 잃고 아버지의 그림자만을 안은 채 눈물로 밤낮을 지새우는 사람도 있다. 다시 한 번 아버지를 뵐 수 있다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어서 행복했다고, 다시 태어나도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겠다고 꼭 일러 주고 싶은 사람도 있다. 당신은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당신이 누리는 당연한 것들이 내일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당신에게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그 후 20대 초반에 나는 명환이와 의기투합하여 동향인들을 모아서 향우회를 만들기로 하였다. 그때는 지금처럼 그 흔한 복사기도 없을 때라 손으로 며칠 밤을 새워 전단지를 만들고 공장이 밀집된 공단지역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터미널에서 직접 배부하였다. 그래서 향우회를 설립하여 서로의 애환을 나누기도 하고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활동도 했으며, 명절 때 표를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덜려고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각 지방으로 보내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향우회의 운영상황을 견학하기 위해 먼 길도 마다하지 않았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과의 함께했던 그 시간이 나에겐 값진 추억으로 자리하고 있다. 때로는 서러움에 울기도 했고 때로는 갈 수 있는 고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넘치는 기쁨이 함께했고 때로는 가진 것은 없어도 돌아갈 고향이 있어 배짱이 두둑할 때도 있었다.

타향에서 그리는 고향과 타국에서 그리는 고향에는 또 다른 애환을 지니고 있다. 서산에 해는 저물어 가는데 돌아갈 고향은 멀게만 느껴지는 것은 나이 탓만은 아닐 것이다.

열심히 일했지만 피할 수 없었던 가난

9월 결연 대상자 – 박남기 어르신

비쩍 마른 몸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걸음걸이, 자연스럽지 못한 움직임, 박남기 어르신의 모습입니다. 어르신은 경기도 양주의 작은 마을에서 3남 1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어르신이 7살이 될 무렵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유는 심부전이었습니다. 지금은 콩팥 이식수술이나 투석으로 살 수 있었으나 그 당시 의료기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재혼을 했습니다. 새어머니와 불화가 많았던 형들은 일찍이 부모를 떠나 독립을 했습니다. 어르신 또한 16세 되던 해에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면서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난 어르신은 오징어잡이 배를 타며 생계를 이어 갔습니다.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던 어르신에게 배를 타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플라스틱 뚜껑을 만드는 사출 공장으로 자리를 옮겨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28세가 되던 해에 함께 일하던 동료의 실수로 왼쪽 손이 기계에 의해 으스러지는 사고를 겪으며 왼쪽 손을 잃게 됩니다. 손을 잃은 슬픔보다 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걱정이 더 컸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망한 후 부모님과 동생의 생계를 보살피는 것은 자신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수술비와 소액의 보상금이 지원되었고 일도 계속 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배려해주었습니다. 장애를 갖고도 열심히 일했지만, IMF로 인하여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다시 일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건강에 문제가 생겨 일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심부전이 어르신에게도 나타난 것입니다. 어르신은 심부전을 치료하고자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콩팥 이식수술을 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피를 걸러주는 투석을 매주 3회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뇌혈관이 막혀 뇌수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수술로 지인과 카드사에 약 1,500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젊은 시절 가족과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건강의 악화로 결혼도 하지 못하고 홀로 힘든 생활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한 달에 기초생활 수급비, 장애수당, 국민연금 등으로 약 7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수입으로 매월 빚 상환에 40만 원, 투석하기 위한 통원치료용 교통비 10만 원, 월세 6만 원, 관리비 6만 원을 사용하고 남는 약 8만 원으로 생계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2년에 한 번 정도 투석을 위해 오른쪽 팔에 넣어둔 고무관을 바꿔야 합니다. 이 수술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약 70만 원 비용이 들어갑니다. 식비를 아끼기 위해 불편한 몸으로 직접 장을 봐서 국과 밥만으로 식사를 하고 병원까지 걸어서 생계비를 아끼고자 노력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이겨내기엔 부족합니다. 어르신이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매월 25만 원씩 12개월간 총 3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유전적 병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힘든 삶을 살아온 어르신에게 희망이 되어주세요.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은 소식지 소개와 더불어 길상사 경내, 다음 카카오 '같이가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

글 • 김창수(희망아카데미 원장)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토크쇼를 말하자면 당연히 〈오프라 윈프리 쇼〉라고 입을 모은다. 쇼의 영향력은 어떤 대학 총장보다, 어떤 정치인보다 크다고 인정받고 있다. 〈오프라 윈프리 쇼〉의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의 무수한 찬사 뒤에는 지난 시절의 고단하고 힘겨운 인생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 그녀의 화려한 성공 신화는 세상 사람들에게 크나큰 감동을 선물하고 있다.

백인 남자들의 전유물이었던 토크쇼의 영역에서 덩치 큰 흑인 여자가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었다. 그녀는 1984년 시카고의 지역 방송 WLS-TV 30분짜리 인기 없는 아침 토크쇼 진행자로 시작했다.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시간을 채우기 위해 제작된 30분짜리 아침 토크쇼는 몇 개월 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대중 토크쇼의 황제로 군림했던 필 도나휴의 토크쇼 시청률을 추월하는 이변을 낳았다. 지역 방송사는 흥분했다. 〈오프라 윈프리 쇼〉는 전국 방영을 시작했고 시카고의 열광을 넘어 미국 전역에서 그녀의 토크쇼에 웃고 우는 열광적인 애청자들이 폭발적으로 생겨났다.

오프라 윈프리는 1954년 미국 미시시피주의 코시우스코라는 시골마을에서 결혼하지 않은 10대 흑인 청소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부모는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졌고 그녀는 친척 집을 여기저기 전전하며 자랐다. 보호자가 없는 그녀의 생활은 미래를 낙관할 수 없었다. 9세 때부터 친척과 이웃들로부터 지속적인 강간을 당했고 14세에 미혼모로 출산했으나 2주 후에 아들을 잃는 슬픔을 겪었다.

그녀에게 미래란 없었다. 버림받고 학대받고 성적인 놀림감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암흑천지 같은 생활 속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할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포기할 수 없었다. 비록 세상에서 자신을 위해 배려해 줄 사랑스러운 손길은 어디에도 없었지만, 스스로 자신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공부하여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받고 테네시 주립대학에 진학했다. 그녀는 타고난 말솜씨로 고등학교 때부터 지역 라디오 방송사의 시선을 끌었다.

미시시피주의 코시우스코 빈민 지역에서 출발한 인생이었다.

인간으로 가져야 할 권리는 전무하고 버림받고 학대받는 생활을 살았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과거의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별천지의 세상을 살고 있다. 토크쇼의 여왕, 패션모델, 영화배우, 출판, 인터넷 사업, 영화와 TV프로 제작을 총망라한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대표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에 선정되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6억 달러가 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아프리카계 미국인 중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하는 선행 천사이다.

자신의 힘겹고 불행한 과거를 바탕으로 자신처럼 상처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오프라 윈프리 쇼〉는 그래서 더욱더 세상 사람들에게 깊숙하게 다가간다.

타인의 경험을 겉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바탕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에 그녀 앞에서 사람들은 함께 울고 웃으면서 자신의 아픔을 희망으로 노래하고 있다.

절망은 없다

글 • 김정희(한국부름의전화 대장)

주룩주룩 비가 내리던 날 자원활동자의 안내를 받으며 시각장애 여인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우산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으로 장애인이 걸어온 공간과 빗줄기의 강도를 짐작할 수 있었다. 의자에 앉자마자 장애인은 비에 젖은 옷자락에는 관심도 없이 미처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들고 온 비닐 포장 속에서 가방을 꺼냈다. 코바늘로 뜨개질해서 만든 붉은색 가방이었다.

수제품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정교해 보였다. 감탄사를 쏟아냈지만, 장애인은 아무런 반응도 없이 또 다른 비닐 봉지 속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더니 능숙한 솜씨로 코바늘 뜨개질을 한다. 조금 전에 꺼내놓은 가방과 똑같은 모양이었다. 그의 손놀림에 감탄사를 토해내며 빠져들었다. 그의 손길에서 오랜 세월의 흐름을 읽을 수 있었다.

방문 목적을 밝히지 않고 조용히 뜨개질만 하는 시각장애인이 답답했는지 안내자로 동행한 자원활동자가 "대장님께 감사의 선물로 드리려고 밤잠 설치며 만든 것입니다" 라고 했다.

'자신이 손수 만든 가방을 선물 하고 싶었나 보다' 짐작은 했지만,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이 최선을 다하여 만든 것인데 "안된다" 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몸가짐을 해야 옳은지 당황스러웠다. 평소대로라면 당연히 천둥 치듯 호통을 쳐서 물건을 돌려주었어야 한다. 이런 점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선물입니다."라는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만든 것은 단순한 가방이 아니었다. 절망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한 시각장애 여인의 장애 극복의 증표였다. 코바늘로 한올 한올 엮어가는 뜨개질은 가난과 무지와 서러움으로 뭉쳐진 삶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도구였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외침이었다.

시각장애 여인은 자신에게 쏠린 호기심을 의식했는지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지난 일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남쪽의 작은 마을, 가난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다. 그래서 한 번도 세상을 본 일이 없다. 아버지는 그가 10살이 되었을 때 가난과 6살, 4살, 2살의 동생들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어린 자식들 밥이라도 굶기지 않으려고 스스로 처자식 있는 남자의 여자가 되었다. 그러나 자식들을 돌보기는커녕 노예처럼 학대받으며 일만 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 바람에 12살 어린 나이에 소녀가장이 되고 말았다. 시각장애인이 동생들을 부양하며 살 방법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마침 일본으로 수출하는 구슬 백(bag)이 성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손이 모자라 시각장애 소녀에게도 구슬 백(bag)을 만드는 보조역할이 주어졌다. 1년 동안 보조역할을 하면서 틈틈이 구슬 백 뜨기를 익혀 마침내 완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다.

무역업자는 일반인이 만든 물건보다 정교하고 아름답다고 칭찬을 하며 계속해서 일감을 주었다. 밤을 새워 뜨개질할 때가 많았다. 그러나 비장애인보다 속도가 느려 충분한 생활비가 되지 못해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다. 밀가루로 풀을 쑤어 끼니를 때우는 때도 있었다. 3일 이상을 굶을 때도 있었다. 기력이 떨어져 누워있는 동생들이 혹시 죽은 것은 아닌가 근심이 되어 동생들 배에 손을 얹어 숨 쉬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굶주림만으로 어려움이 끝나

는 것이 아니었다.

남동생이 초등학교 졸업을 하자 14살 동생에게 입대 통지서가 나왔다.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여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남매를 한꺼번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호적계 담당자의 실수로 시각장애 여인은 8살, 남동생은 6살, 그리고 두 동생은 각각 4살씩 실제 나이보다 높게 기재가 되었다. 그 바람에 생긴 웃지 못할 일이었다. 훗날 잘못된 기록을 바로 잡으려 했지만, 정정이 되지 않았다. 집에서 자연분만으로 출산했기 때문에 출산증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후유증은 동생으로 끝나지 않고 그에게도 찾아왔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가 8년이나 일찍 끝나고 말았다. 말할 상대가 없어 한 달 동안 아무와도 대화하지 못하고 지낼 때도 있었다. 울분과 서러움을 떨쳐버리기 위해 열심히 뜨개질을 했다.

그때 우연히 만난 자원활동자로부터 부름의전화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적응훈련을 하며 전국의 산과 들을 찾아 걷기 활동을 하는데 신청을 하면 차량지원자가 와서 집결지로 이동시켜준다고 했다.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다. 차량지원자가 왕복으로 차량지원을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반신반의하며 부름의전화에 신청을 했다. 그날이 왔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5시 정각에 차량지원 활동자가 도착하여 여의도 성모병원 앞 샛강 주차장으로 갔다. 집결지에는 또 다른 시각장애인들이 도착하고 있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꿈만 같았다.

버스로 강원도 대관령 선자령으로 향했다. 버스 안에서 자연과학에 대한 강의도 들었다. 선자령에 도착했을 때 선자령은 완전히 하얀 눈으로 덮여있었다. 그렇게 많은 눈을 본 일이 없다. 손으로 눈을 만져보았다. 하얀 눈의 촉감이 손바닥에서 심장으로 전달이 되었다. 눈물이 솟아올랐다. 모든 것이 새로웠다. 세상은 한없이 넓다는 것도 그날 알았다. 그날 이후 사회적응훈련이 있는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참여를 한다. 그날은 내가 다시 태어나는 날이기 때문이다.

전국의 산과 들을 걸으며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진다는 것을 알았고, 계곡에서 흐르는 물소리와 새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과학도 역사도 문학도 사회적응훈련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었다.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뜨개질하는 것 또한 돈을 벌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내가 만든 가방을 누군가 들고 다닌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것까지 잊게 된다.

시각장애 여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여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꿈을 꾸는 듯 행복한 모습이었다. 절망은 없었다.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사는 일에 뜻을 함께해요

시민모임「맑고 향기롭게」의 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 궁금한 점 또는 회원님의 변경된 정보(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나 직접 발간하신 저서, 글,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 등이 있으면 사무국으로 방문 또는 전화, 편지, 전자 우편으로 알려주세요.
또한, 청정한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더욱 맑고 향기롭게 가꿀 수 있는 여러 활동이나 참신한 아이디어, 여러 회원, 시민과 함께할 수 프로그램을 공유해주실 분과의 만남을 기다립니다.
『맑고 향기롭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순수모임으로 나아갈 것을 지향하며,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사는 일에 뜻을 함께하고자 한다면 종교, 종파에 상관없이 손을 맞잡을 것입니다. 뜻을 함께하실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전자 우편 :** clean94@hanmail.net
- **주소 :** 서울 성북구 선잠로 5길 68 길상사내 (사)맑고향기롭게
- **전화 :** 02.741-4696

아홉 번의 인내

옛날 한 젊은이가 스님이 되기 위해 노승을 찾아갔습니다.
노승은 젊은이에게 시험에 합격하면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마침 솥을 새로 걸던 참이어서 젊은이에게 걸라고 했습니다.
젊은이는 행여 노승의 마음에 안 들면 시험에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서툰 솜씨나마 정성껏 솥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노승은 말했습니다.
"이쪽이 기울었네, 다시 걸게"
젊은이는 솥을 내리고 균형을 맞춘 다음 솥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노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솥의 방향이 틀렸네, 다시 걸게"

젊은이는 솥을 내리고 방향을 맞춘 다음 솥을 걸었습니다.

노승은 갖가지 이유로 솥을 다시 걸게 하였습니다.
무려 아홉 번을 트집 잡아 반복하게 했습니다.
노승이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계속 일을 반복하여 시키는데 자네는 화가 나지도 않나?"

그러자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세 번까지는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분명 무슨 뜻이 있을 거로 생각하니 오히려 기대되었습니다. 앞으로 몇 번이든 더 반복할 자신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통 세 번이면 화를 내고 가버리는데 자네는 아홉 번까지 참았네. 오늘부터 자네를 제자로 삼고 자네의 이름을 구정이라 부를 걸세."
그 젊은이는 후에 구정 선사로 존경받는 스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속도는 어떤가요?
너무 빨리 달리면 그만큼 위험이 따르게 되어서 얻는 것만큼 잃는 것도 많아질 것이고, 너무 느리게 달리면 목표지점에 다다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알맞은 속도로 달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가슴속에 작은 인내를 품고 참고 기다리며 알맞은 속도로 달려갈 때 인생의 참다운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달의 명언 〉
멈추지 않는 이상,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 공자

* 출처 : 따뜻한 하루

실종 신고

글 • 윤언덕(작가)

'친구' 유명한 곽경택 감독의 영화 '똥개'에서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

형사인 아버지(김갑수)가 낯선 고아 소녀(엄지원)를 집에 데려오며 비슷한 또래의 고교생 아들(정우성)에게 친남매처럼 지내라고 한다. 그러나 주인공(정우성)은 사사건건 자신의 생활에 간섭하는 그 소녀가 싫어진다. 그래서 어느 날 또 잔소리하는 소녀에게 생각 없는 한 마디를 짜증스레 내뱉고야 만다.

"니, 너거 집에 가라! 이 가시나야!"

고아로 자라온 소녀에게 이 말이 큰 상처가 됨은 물론이다.

화가 난 소녀가 이야기한다.

"니, 그것밖에 안 되나? 이 **놈아!"

"……."

"어릴 때 엄마가 바람이 나서 가출하고 아버지는 칼을 품고 엄마를 찾아다니다 죽었다. 그래서 나는 먼 친척 아주머니 집에서 자랐다……. 어느 해 어린이날, 친척 아주머니가 나를 예쁜 옷으로 갈아입히고는 어느 집 대문 앞에서 눈감고 100까지 헤아리라고 했다……. 시킨 대로 눈을 감고 100을 헤아린 후 무서워 눈을 떠야 하는데……. 그런데 눈을 뜨면 아주머니가 나를 두고 멀리 뛰어가는 게 보일까 봐 눈을 못 뜨겠더라……."

코미디 풍의 영화였는데 이 장면이 너무 슬퍼서 나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못살던 시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는 많은 부모님에게도 경우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녀가 어릴 적 길에서 잃어버린 경험이 한 번 정도는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본다. 내 초등학교 시절에는 백 명씩이나 되는 학급 인원 중에서 고아원 소속인 아이들이 한 학급에 늘 서너 명 있었다. 당시 못살아서 부모가 버렸을 경우가 많겠지만, 길에서 우연히 길을 잃어 고아 아닌 고아가 된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내 어머니는 우리 삼 형제가 유년 시절일 때 길에서 큰형을 잃어버린 이야기를 자주 하시곤 했다. 그 당시 도시의 변두리 극장에서 김지미, 최무룡이 주연으로 나왔던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영화를 이웃 아줌마들과 함께 보고 오다가 그 이웃들과 즐겁게 담소하는 틈에 네 살 어린 아이가 사라진 사건이었다. 집에서 3km가량 떨어진 먼 거리에서 아이를 잃어버렸기에 젊은 새댁이 받은 충격은 실로 대단했던 것 같다. 온종일 찾다가 밤늦게 집 근처 골목 어귀에서 겨우 찾았다는 것이다. 그런 일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 이후에도 나들이 때 두 번이나 큰형을 길에서 잃어버린 아찔한 사건이 있었다.

요즘도 TV를 보면 어릴 때 길을 잃어 고아가 되어 외국에 입양된 아이가 장성하여 부모를 찾는 장면을 흔히 대할 수 있다. 故 최진실이 주연으로 나와서 유명했던 실화 영화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의 주인공이나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한국 입양아 출신 프랑스 통상장관 '펠르랭'도 그런 경우로 보인다.

내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큰 아이가 네 살이던 해, 어느 토요일 오후로 기억한다. 평소처럼 오전 근무를 마치고 서점에 들러 휴일에 읽을 책을 몇 권 사 들고 집으로 들어오는 길이었다. 동네 어귀에 들어오니 어머니와 아내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길을 헤매고 있었다. 이유인즉슨, 아들아이가 아침 일찍 말도 없이 집을 나갔는데 오후 네 시가 된 그 시간까지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찾아 나섰다는 것이다. 두 고부(姑婦)는 거의 사색이 된 얼굴이었다. 아들 녀석의 친구 집이나 유치원

등을 빠짐없이 들렀건만 아무도 애를 본 적이 없는 사실도 불안감을 더하게 만들었다.

문득 며칠 전에 있었던 아들아이가 나와 아내에게 한 말이 내 뇌리를 스쳤다. 집으로 들어가는 동네 어귀 큰 골목에는 차가 한 대 다닐 정도의 길이 있는데 그곳은 지금도 여전히 'ㄱ' 자의 급커브길이다. 아들 녀석은 자신이 그 길 가운데로 급히 뛰어갔는데 갑자기 녀석 앞으로 승용차가 '끽!' 소리를 내면서 급정거를 하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운전자는 핸들에 머리를 묻고 한동안 꼼짝하지 않았다고 했다. 놀랬기 때문일 것이다. 아내는 그 말을 듣자마자 금방 화난 얼굴이 되어, 방구석에 놓여있던, 회초리 대신 사용하던 빗자루를 찾기 시작했다.

"이 녀석아, 너 차에 치여 죽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 사건이 다시 생각나자 내게도 불안감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아내와 나는 파출소로 달려가서 유아 실종 신고를 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아직 날이 어두워지지 않았으니 좀 더 찾아보자고 이야기하며 무전기에다 대고 뭐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부부를 안심시켰다.

이윽고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나는 초조해져서 그야말로 미쳐버리는 느낌이었다. 아내는 이내 울먹이기 시작했고 나는 애꿎은 담배만 피우면서 동네 이 골목 저 골목을 헤매기를 계속했다. 드디어 나는 돌아가신 아버님 이름을 부르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평소에 믿지 않던 하느님께 몇십번이고 기도했다.

"하느님 아버지, 제발 우리 아들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앞으로 제게 일어날 어떤 대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부부가 길을 헤매는 동안 날은 아주 어두워졌다. 길에 있는 공중전화로 집에 있는 어머니에게 연락했으나 여전히 아이는 집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다. 부부는 공황 상태가 된 채 낙담하여 집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그런데 걷는 중 뒤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뭔가 말하는 느낌이 들었다. 너무 피곤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진 탓이리라 생각했는데 뭔가가 들리고 있다는 느낌은 계속되었다.

"엄마, 아빠! 어디가?"

뭔가 헛것이 들리기 시작하니 갑자기 이제는 모든 게 막막하고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 아내는 거의 실성한 듯했다. 그러다가 뭔가 작은 물체가 어둠 속에 우리 앞으로 갑자기 '톡' 튀어 들어왔다.

아들 녀석이었다.

"헤헤, 엄마 아빠!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나는 너무도 감사해서 녀석을 부둥켜안고

"요 놈의 새끼! 주먹만 한 새끼! 어디 갔다 이리 늦게 기어들어 오는 거야?"

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아내는 금시 정신이 돌아왔는지

"요놈의 자식, 삽살개 같은 자식! 너 오늘 매맛 좀 봐야겠다. 너를 찾느라 여섯 시간 동안 동네를 미친 듯 헤맸다. 너 오늘 한 번 제대로 맞아 봐라!"

이렇게 해서 그날 아들 녀석의 실종 사건은 막을 내렸다. 녀석은 근처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옆 동네 아이들과 해가 지는 것도 모르고 공놀이를 한 모양이었다. 부모가 놀라는 모습을 보고 녀석이 더 놀랐던 사건이다. 물론 아내와 나는 녀석이 무사히 돌아온 데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말로만 겁을 주었을 뿐이다. 우리는 비폭력주의를 주장하는 가족이다. 아내의 말에 의하면 그날 밤, 내가 꿈을 꾸는지 계속 같은 내용의 잠꼬대를 하더라는 것이다.

"하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상사 지장회 봉사자 모집

극락전과 지장전에서 재사 봉사를 하는 지장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신심 있는 불자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봉사 업무** : 재 담당 봉사, 법당 정리
- **문의** : 종무소 02-3672-5945

법정 스님의 글로 잘못 알려지고 있는 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킹(SNS)의 콘텐츠나 정보가 퍼지는 속도 또한 가공할 만합니다. 새로운 정보에 댓글이나 코멘트 등을 작성함으로써 이야기가 덧붙여지고 궁금한 걸 물어보면 누군가 어느새 답을 제공하기도 하죠. 그러나 검증이 안 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인터넷과 SNS에 올리게 되어 삽시간에 잘못된 내용이 퍼지게 되면 그것을 수습하기엔 꽤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법정(法頂) 스님의 글 또한 잘못 알려지거나 출처가 불명확하여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어 안내 드립니다.

*** 개를 잡아먹지 말자**

한국은 오는 2002년에 일본과 함께 월드컵 축구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개최의 기쁜 소식과 함께 외국의 동물애호가 협회에서 한국의 개고기 습관을 비판하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의 기억에 88올림픽 때에도 그러한 경험을 한 한국인으로서는 참으로 난처한 모욕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일반적인 느낌이다. – 생략 –

(안내) 이 글은 잡지 '불교세계' 1996년(불기 2540년) 9월호에 법전 스님(호주 시드니 정법사)이 쓰신 글로 확인되었습니다.

*** 귀한 인연이길**

진심 어린 마음을 주었다고 해서, 작은 정을 주었다고 해서, 그의 거짓없는 마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의 깊은 정을 받았다고 해서, 내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깊은 사랑의 수렁에 빠지지 않기를. – 생략 –

(안내) 인터넷상에서 '귀한 인연이길' 또는 '귀한 인연이기를'으로 유포되는 이 글의 원작자는 유혜정 시인입니다.

*** 여보게 친구, 부처를 찾는가?**

여보게 친구! 산에 오르면 절이 있고 절에 가면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절에 가면 인간이 만든 불상이 자네를 내려다보고 있지 않는가. 부처는 절에 없다네. – 생략 –

(안내) 인터넷에 '여보게 친구, 부처를 찾는가?'라는 글은 법정 스님의 저서에서 찾을 수 없으며, 글의 내용이나 문체가 스님의 문체[文體]가 아니며 출처가 불명확합니다.

*** 믿지 않는다 하여 자신의 자식이라 하는 인간들을…**

믿지 않는다 하여 자신의 자식이라 하는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당신네들의 신들을 난 당최 이해할 수 없다.

차라리 난 지옥에 가서 당신네 신에게 버림받은 그 억울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

(안내) 스님의 사진과 함께 편집되어 유포되는 글 중의 하나로서 출처가 불명확합니다.

*** 중년의 삶**

친구여! 나이가 들면 설치지 말고 미운 소리, 우는 소리, 헐뜯는 소리 그리고 군소리, 불평일랑 하지를 마소. 알고도 모르는 척 모르면서도 적당히 아는 척, 어수룩하소. 그렇게 사는 것이 평안하다오. – 생략 –

(안내) 이 글은 법정 스님의 문체로 볼 수 없으며 출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 법정 스님의 글이 인터넷에서 잘못 퍼지거나 저작권을 위반하여 인쇄물로 배포되는 사례를 발견하시면 (사)맑고 향기롭게 법인 사무국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벗님들에게

글 • 현정화(회원, 영어강사)

새하얀 맑은 아침에
따스한 햇빛님께 조용히 인사드립니다

밝은 햇살이 오늘도 눈부시도록
제 까만 머리에 빛을 내리소서

싱그런 아침이 내 첫 벗님이 되어
나의 뜨락에 조용히 내려오소서

행여나 못본체 해도 스쳐 지나지 마시고
골고루 동심부터 하얀 할머니 머릿끝까지 거두어 주소서

푸르른 잔디에 내 발끝이 닿일 때
쓰러지는 아픔이 순간으로 멈추고 영원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소서

짓누르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게
고통을 호소하더라도 내가 먼저 그 아픔을 받아내는 순례자가 되게 하소서

햇살, 잔디, 하늘, 구름, 자연의 벗님들
제일 먼저 자기를 낮추는 이들에게 길동무 되소서

내가 먼저 활짝 웃읍시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정말입니다.

웃으면 뇌하수체에서 많은 엔도르핀이 만들어져서 스트레스가 확 풀린답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거지요. 그럼 행복하잖아요. 복이 찾아온 거지요!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해 주더군요. 아기가 사랑스러운 것은 방긋방긋 웃기 때문이라고요.

만약 아기가 허구한 날 먹고, 자고, 오줌 싸고, 똥 싸고, 울기만 한다면 어떻겠느냐고요.

아무리 예쁘고 잘생긴 아기라도 지겹고, 미워질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 아기의 냄새 나는 똥까지도 사랑스럽게 여기는 엄마는 있을 수 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비단 아기의 웃음뿐 아닙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청년들의 호탕한 웃음, 어르신들의 느긋한 미소까지 환히 웃는 모습은 그 누구일지라도 보기 좋고, 기분 또한 좋은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웃음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혼자 웃는 것보다는 함께 웃는 것이, 타인을 비웃거나 조롱하기보다는 서로가 하나가 되면서 일체감을 느끼면서 웃는 웃음이 더 건강하다고 합니다.

참,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는 비결 하나!

아침에, 잠에서 깨면 눈부터 뜨지 마시고요.

먼저 웃어보세요. 이유 없습니다. 그냥 혼자 기분 좋은 양 웃는 습관을 들이면 절로 하루가 행복한 날이 됩니다. 꼭 실천해 보세요.

내가 먼저 말입니다.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7)

맑고 향기롭게 정기 자원 활동 봉사자 모집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을 위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밑반찬을 지원합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전에 끝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치 않고 쓱쓱 해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김치 나눔 활동 : 3월~11월 둘째 목요일)

*** 전화 말벗 자원활동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대상자 중 홀몸노인, 장애인 등에게 봉사자가 가정에서 정기적인 전화 통화를 하여 일상적인 안부와 건강, 영양 상태, 생활환경 변화를 지켜보고 더불어 대상자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대화기법·상담 등에 소질이 있는 분은 함께해주세요.

*** 진인 노인요양원 정기 자원활동 :**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참여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9월은 추석 명절로 인하여 첫째 일요일(4일)에 진행합니다.

*** '아름다운 만남' 청소년 정기 자원활동 :**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홀로 어르신의 집을 월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말벗과 청소를 해드리고, 안마나 동네 산책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생동감과 발랄함으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축된 어르신을 위로하고, 생의 의지를 돋우는 프로그램입니다.

*** 의류 리폼(재단, 디자인) :**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 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녹색 장터를 통해 판매,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적립합니다. 모임은 매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 '아름다운 마무리 캠페인' 정기 자원활동**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해 노인 자살의 주요 원인인 경제적 빈곤을 해소하는데 취지가 있으며, 매달 발간하는 소식지에 후원이 필요한 독거노인 1명의 사연 소개와 다음카카오 '같이가치' 온라인 모금과 더불어 1~2회 거리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의 생계비 지원을 위한 결연 후원, 의료비·난방비 지원, 사례 관리 등의 공익사업비로 전액 사용하고 있습니다.

녹색나눔장터 안내

4월에서 10월까지 넷째 일요일에 회원님과 신도님이 즐겁게 참여하고 운영하는 장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 장터 참여 품목 : 오래된 물건을 새롭게 리폼한 소품, 직접 재배한 유기농산물, 수제 천연화장품&친환경 세제, 재고로 남은 환경용품, 공예소품, 친환경 먹거리 등, 개인 재활용품 벼룩시장 참여
- 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 장소 : 길상사 뜨락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 급식 자원활동은 7월 26일부터 9월 26일까지 센터 식당 내부 공사로 인하여 자원활동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숲과 전통시장을 찾아서' 안내

- 10월 1일(토) : 충북 옥순봉 충주호 주변의 절경, 단양 단양장
  - 참가비 : 35,000원(점심 식비 포함)
  - 입금처 : 외환은행 301-22-00270-1
  - 예금주 : 맑고 향기롭게
- 접수는 9월 5일(월) 선착순 40명 전화 접수
- 장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접수처 : 중앙모임 02-741-4696

봉사자와 함께하는 '해남 법정 스님 생가, 우수영' 기행

- 10월 24일(월) : 해남 법정 스님 생가터, 우수영 장터
- 참가 자격 : 본모임 현재 활동중인 자원봉사자 우선 접수(40명)
- 접수, 일정은 차후 공지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모임 홈페이지에서 CMS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일시 후원

뜻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본모임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 중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세요.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시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9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1일(목/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일요특강 '길상사 오감 경영 아카데미' : 25일(일)오전 11시 / 상호존중과 배려의 삶 / 정두근 (사)상호존중과 배려운동본부 총재 / 설법전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매주 목, 금요일(1,2,8,9,22,23,29,30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김치 나눔 자원활동 : 9월은 추석 명절로 인하여 김치 나눔이 없으며, 추석명절 선물셋트와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7월 26일 ~ 9월 26일 – 센터 식당 공사로 자원활동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진인노인 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 자원활동 : 첫째 일요일(4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 : 넷째 화요일(27일)/오후 1시 30분/세계일화실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 둘째, 넷째 토요일(10,24일)
-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 미정 / 길상사 경내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매주 화요일(6,13,20,27일)/세계일화실
- 녹색나눔장터: 미정/길상사 경내

〈정기 재정 후원〉

-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월곡 청소년 센터 위탁운영 및 정기 후원
- 서울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극빈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자혜원(아동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일반사업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외환은행 117-13-60373-4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장학금 후원계좌**
외한은행 141-22-01683-9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문의 : ☎02)741-4696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 2층, 3층을 새롭게 단장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2층은 회원모임 공간과 사무실로 3층은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중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음식조리활동(10시 ~ 13시), 배달 및 말벗활동(19시 ~ 21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 식사도움, 빨래정리, 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 :** 매월 첫째 화요일 11시
- **법정스님 책읽기 모임 :**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 법정스님 법문집 읽기, 법문영상보기
- **햇살청소년지원사업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청소년 물품 및 정서지원
- **정기 자원활동가 모집**
  (사)맑고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설거지봉사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 첫마음(소식지)발송 : 매월 초
  – 사옥 관리 및 청소 : 월중 수시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2시
  –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 / 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1시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위안부 할머니 지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지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부산모임 (051-898-2672~3)

- **사회복지시설 정기 활동**
  - 장애인 이동목욕활동 : 매주 수요일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 매주 목요일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 매주 금요일
  - 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 매월 둘째 수요일, 셋째 목요일, 넷째 금요일, 넷째 토요일,
  - 해운대 사랑의 이동 밥차 무료급식 : 매월 둘째 목요일
  - 지역정화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 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월 셋째 화요일
  - 부산진구 독거노인 밑반찬봉사 : 매주 수요일
  - 연화원 대청소 : 매주 목요일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홀로어르신 밑반찬 배달 : 매주 금요일
- **불우이웃 돕기 & 나눔 활동**
  - 명절, 연말 불우이웃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청소년 가장 장학금 지원 및 의료, 생계비 지원
  - 홀몸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 **부산시민공원 정화활동 :** 매월 2,3주 토요일
- **숲기행 자연보호활동 :** 매월 4주 월요일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오전 9시 30분 ~ 오후 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김치 담그기/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무국
- **노래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천연 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금강경 독송 천일기도

- 일시 : 매일 오후 2시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5만원 / 각 회차(100일)
- 설판도 받고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3회차 기도가 8월 28일(일) 입재되었으며, 수시로 접수합니다.

천수다라니 33독 기도

- 일시 : 9월 3일(토) 오후 7~9시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대입수능 100일기도

- 일시 : 매일 오후 2시 (입재 8월 10일 / 회향 11월 17일)
- 장소 : 극락전

초하루기도 및 법회

- 일시 : 9월 1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9월 10일(토) 오후 8시 00분 ~ 9월 11일(일) 새벽 3시 40분
- 장소 : 극락전

추석합동차례

- 일시 : 9월 15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5만원

지장재일 기도

- 일시 : 9월 18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관음재일 기도

- 일시 : 9월 24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초발심자경문 강의 개강

- 일시 : 매주 화요일 (9월 6일 개강)
  - 주간 오후 1시 40분 ~ 3시 50분
  - 야간 오후 7시 30분 ~9시 40분
- 동참금 : 무료

'2016년 사랑 나눔 종교연합바자회' 안내

2008년부터 성북동에서는 〈종교는 다르지만 나눔은 하나다〉라는 주제로 덕수교회, 성북동성당, 맑고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가 종교의 벽을 넘어 한마음으로 종교연합바자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먹거리와 식재료, 의류, 생활용품 등이 마련되며, 수익금은 전액 성북구 관내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사용됩니다. 뜻 깊은 화합의 자리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정 : 10월 8일(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4시
- 장소 : 성북동 진입 도로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 신한은행 앞 도로)

9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천수다라니기도	9월 3일(토)	저녁 7시	극락전
초하루법회	9월 1일(목)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추석합동차례	9월 15일(목)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9월 18일(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9월 24일(토)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9월 10일(토)	저녁 8시	극락전
대입수능 100일기도	매 일	오후 2시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저녁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오전 9시 50분/저녁 7시	지장전
금강경독송 천일기도	매 일	오후 2시	극락전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세심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세심당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거사림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합창단 정기연습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12시	소강당
천수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소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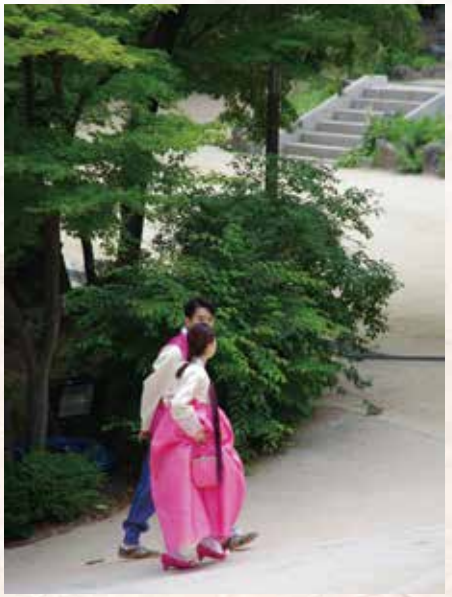

사진 • 진각

진정한 만남은 상호간의 눈뜸(開眼)이다.
영혼의 진동이 없으면
그건 만남이 아니라 한때의 마주침이다.
그런 만남을 위해서는
자기자신을 끝없이 가꾸고 다스려야한다.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먼저
나 자신이 좋은 친구감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친구란
내 부름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이다.

–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중에서 –

길상사 하반기 불교 강좌 안내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불교대학에서 가을 불교 강좌를 개설하여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바른 신행과 교육을 통하여 반야를 향해 정진하는 불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기원합니다.

불교대학 7기 2학기 개강

- **입학자격 :** 기본교육과정을 수료하신 불자님
- **일시 :** 매주 목요일 (9월 1일 개강)
  - 주간 : 오후 1시 40분 ~ 3시 50분
  - 야간 : 오후 7시 30분 ~ 9시 40분
- **교육비 :** 20만원

가을 경전반 개강

- **개강일 :** 2016년 9월 23일 금요일 (3개월 과정)
- **강의시간 :** 매주 금요일 (주간 오후 2시~4시)
- **교육비 :** 7만 원

불교입문 33기 개강

- **개강일 :** 2016년 9월 7일 수요일 (3개월과정)
- **강의시간 :** 매주 수요일 (주·야)
  - 주간반 : 오후 1시 40분 ~ 3시 50분
  - 야간반 : 저녁 7시 30분 ~ 9시 40분
- **지원자격 :** 초발심자, 불교에 처음 입문하고자 하는 분 누구나
- **특전 :** 수료 후 5계 수지, 불명(佛名) 수계
- **수강료 :** 7만 원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길상사 홈페이지 – 배움터)
- **접수계좌 :** 신한은행 100-025-929544 (길상사 불교대학)
- **문의 :** 길상사 종무실 02-3672-5945

2016년 9월 1일(매월1회) **발행**·**통권** 259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등록번호** 서울라08708호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136-022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 길상사 내
☎02)741-4696